

## 평범함에 감사합니다.

하트 리듬 희망 특별상

이 은 영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오늘도 몸이 피곤했나?’ 불쑥불쑥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두근거림. 식은땀과 함께 몸에 힘이 빠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지금 기억으로는 열일곱, 열여덟살 때 즈음인 것 같은데 그 전부터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시험기간이나 몸이 피곤하거나 아니면 생리 전에 자주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는데 한숨 자고 일어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맥박에 병이라 생각하지도 않았고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게 저렇게 지내다 대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동네 병원으로 진료를 보러 가는 엄마를 졸래졸래 따라갔다. 엄마가 아파서 따라간 거였는데 어머니! 심장이 두근두근... ‘엄마, 나 심장이 벌렁거려...’ 그 날 처음 심전도 검사라는 걸 해봤다. ‘어... 아무래도 큰 병원 가서서 검사를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의 한마디에 철렁... 심장의 두근거림이 더 빨라진 것 같은 건 느낌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찾아간 큰 병원. 외래를 보면서 교수님께서 여러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심장 초음파, 24시간 심전도 검사 등등. 24시간 심전도 검사를 하는 와중에는 최대한 심장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보라 하셔서 맥주도 마시고 뽕박질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그 24시간동안 내 심장은 정말 멀쩡했다. 기계를 반납하러 가는 버스안에서 숙제를 못 해간 학생처럼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나의 걱정을 누가 들어준 것처럼 그 순간 심장 발작이 일어났다. 가슴이 답답하고 힘이 드는 불편함보다 교수님께 내 증상을 알려드릴 수 있겠다는 안도감이 들었다는게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 ‘교수님, 저 지금 심장이 두근거리는데요.’ ‘당장 심전도실로 가서 검사 받으세요!’ 심전도 결과지를 확인하신 교수님께서 시술이 필요하다고 하셨다. 내 심장에 기형적으로 생긴 부전도로가 있어 그걸 잘라줘야한다고 하셨다. 다행히도 개복하지 않고 간단히 시행할 수 있는 시술이라 하셨지만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 태어나서부터 병원 가는 일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강했는데 심장시술이라니...



#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시술일이 정해지고 입원을 하니 정말 환자가 된 기분이었다. 물론 환자 맞지만 전혀 환자 같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 코스프레하는 기분이었다. 시술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고 부모님은 동의서에 사인하시고... 전기도자절제술을 시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설명하시는데 그제서야 덜컥 겁이 났다. 내 심장의 부전도로가 정상 노드와 가까이 있어 정상과 함께 잘릴 수도 있고 그러면 평생 가슴에 심장을 뛰게하는 장치를 넣고 다녀야 한다는... 진짜 험...이었다. 시술 당일 베드에 누워 시술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아직도 몸을 떨게 한다. '제발 무사히 시술 받게 해주세요!' 부분 마취속에서 교수님과 전공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생생히 들리고 가슴 가까운 혈관에 삽입해 놓은 관에서 어깨를 타고 흐르는 것도 느껴지고... 절제가 시행될 때 느껴지는 가슴 빠근함은 인내심 테스트용인 것 같았다. 단순히 통증을 생각하면 차라리 잠들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환자를 위해 논의하시고 신중히 행하시는 시술을 받으며 의료진들에게 신뢰감이 들었다. 잊지 못할 색다른 경험이었다. 시술보다 더 힘들었던 건 중환자실에서 여섯 시간인지 일곱 시간인지 꿈쩍 않고 누워있어야 했던 것이다. 정말 모니터 맥박수만 쳐다봤던 기억이...

시술 후 다음 외래까지 룰루랄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것처럼 지냈다. 외래를 며칠 앞두고 몸이 이상했다. 왜 심장이 두근거리지? 그냥 느낌인가? 아는데... 맥박수가 높다... 왜 이러지? 설마... 외래 진료를 보면서 증상을 말씀드리니 아마도 시술로 자른 부전도로가 다시 붙은 것 같다고 하셨다. 그나마 다행인건 발작을 덜 일으키는 부분이어서 생활에 별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셨다. 아... 인생은 쉽지 않구나!

그 후로 일 년에 두, 세 번 정도 몸이 피곤하면 발작이 일어나 맥박수가 분당 150번 이상으로 올라갔지만 빠르면 한 시간 길어도 두, 세 시간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지냈다. 그렇게 지내다 결혼하고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그 곳에서 병원에 가면 문진표를 작성하고 처음 의사를 만날 때마다 나의 심장 상태를 설명해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리면 시술해주신 교수님께 진단명을 안 물어본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 진단명 하나면 끝날 상황에 주저리주저리... 알아 듣기는 하는건지... 아무래도 시술해주신 교수님이 있는 한국 땅이 아니니 미국에서 심장이 덜컹하는 느낌이 나면 더 불안하게 느껴졌다. 발작 후에 맥박이 안돌아오면 어찌지... 이런 걱정이 심해지면 심지어 잠들다 못 일어나면 어찌지...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자주 일어나는 발작은 아니었지만 발작이 일어나면 마음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다



#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가도 정상으로 돌아오면 나의 심장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생활했다. 불안불안, 즐겁게 행복하게, 불안불안, 즐겁게 행복하게... 이렇게 16년을 그 곳에서 지냈다.

평생 미국에서 살 줄 알았는데 어쩌다보니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내가 살던 나라인데도 적응하는데 시간도 에너지도 필요했다. 나의 심장은 아주 가끔 ‘나 정상 아닌 거 알지?’라고 알려주려는 듯 가슴에 ‘덜컹’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두근두근두근 1분에 150번 160번씩 뛰곤 했다. 물론 손 까딱 할 힘도 잊지않고 빼앗아 갔다. 그 때까지도 걱정은 해도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은 안한 것 같다. 그러다 예약해 놓은 건강검진일 전에 심장발작이 있었고 예정대로 검진을 받으러 갔다. 물론 심전도검사가 포함된 검진이었는데 검사결과를 확인한 의사선생님께서 혹시 심장에 문제가 있냐고 물어보셨다. ‘네...’ 의사선생님께서 ‘맥박이 그렇게 빨리 뛰는데 아무 조치도 안하시면 심장에 큰 무리가 갑니다. 세 시간동안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면서 운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고생하십니다. 심장발작 일어나면 응급실로 오세요.’ 대답은 ‘네’ 했지만 귀차니즘 아줌마는 계속 그냥 살던대로 살았다.

그런데 작년부터 발작 후 그 증상이 달라짐을 느꼈다. 예전에는 가슴이 덜컹하는 느낌이 난 후 심장이 뛰는 것이 밖으로 보일 정도로 크고 강하면서 빠르게 뛰다가 두, 세 시간 정도 후에 진정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덜컹으로 시작하는 느낌은 같지만 빠르지만 약하게 뛰었다. 문제는 지속 시간이었다. 5시간이 지나도 10시간이 지나도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하루가 지나도 계속 뛰었다. 슬슬 걱정이 되었다. 검진받을 때 만났던 의사 선생님 말씀도 떠오르고... 하루 반나절이 지나도 계속 두근두근...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었다. 난 분명 걸어서 들어가고 있었는데 맥박수가 160이 넘으니 갑자기 응급환자가 되었다. 의료진들의 신속한 행동에 깜짝 놀랐다. 집에서 그냥 참고 있을 상황이 아니었구나. 1997년 시술 후 2019년, 20년이 넘어서야 깨달은 사실이다. 아데노신 투여 직후 가슴 빠근함이 지나가고 평화가 찾아왔다. 아... 행복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은 나 뿐만은 아니었나보다. 남편의 닥달...아닌 권유로 시술 받은 병원에 외래 예약을 했다. 시술해주신 교수님은 시술 후 20여년이 지난 지금 은퇴를 하셨다. 응급실에서 받은 심전도 검사 결과지를 들고 만난 교수님은 예전 기록과 함께 확인하시고 ‘시술을 다시 받으시는게 좋겠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서 ‘진즉 찾아올걸... 나 참 무식하게 참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시술 날짜를 잡고 마음이 편해졌다. 하루하루 시술일만 기다



#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리며 버티고 있었는데 나의 심장은 기다릴만큼 기다렸다는 듯이 정말 자주 발작을 일으켰다. 그것도 열 시간 이상으로 지속되는 놈으로. 응급실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할 정도로. 아메리카노를 마시면 발작을 하나... 잠을 늦게 자면 발작을 하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발작을 하나... 생각이 많아지고 그 좋아하는 커피도 맘대로 못 마시면서 시술일을 기다렸다. 그런 와중에 시술일 얼마 전 우리나라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특히나 내가 사는 경북지역에 코로나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었다. 하루하루 기다리는게 정말 힘들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로 병원에서 시술일 변경을 부탁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정말 눈물이 났다. 하지만 어찌겠나...

그렇게 두 달을 버티고 입원을 하게 되었다. 종이에 하던 시술 동의서 사인을 테블릿에 하고, 시술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으로 시청하고. 20여년은 정말 강산을 두 번 변하게 했나보다. 시술 전날 밤 한 회도 놓칠 수 없었던 ‘슬의생’을 보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 3시쯤... 심장 덜컹! 발작이 시작되었다. 간호사님 오시고 전공의님 방문해주시고. 당일 시술이 잡혀서 불행히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고 한다. 하필 시술도 마지막이라 또 12시간을 두근대는 심장을 부여잡고 기다려야 했다. 드디어 내 차례다. 베드에 누워 실려가는 이 상황을 또 경험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시술실에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의료진들이 있었고 일사분란하게 시술 준비를 했다. 심전도를 몸에 부착하자마자 뜬 부전을 보고 ‘고생이 많으셨겠어요.’하는 의료진 말씀에 눈물이 날 뻔했다. 역시 이번에도 부분마취를 하고 시술이 진행되었다. 아는게 없는 나는 재발된 부전도로만 없애면 되는 줄 알았는데 뭔가 시술이 길어지는 느낌이었다. 가슴으로 느껴지는 통증은 점점 더 강해지는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실이 더 고통스러웠다. 기다림의 끝을 모르는 고통. 교수님께서 ‘많이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하시고 대답도 ‘네’ 라고 한 기억은 있는데 왜 ‘힘들어요.’ 말을 안했는지... 입원실에서 만난 간호사님이 ‘마취는 잘 깨셨어요?’ 물어보는데 ‘저국소마취만 했는데요.’ 했더니 ‘정말요?’ 하시는데 ‘아, 나 또 무식하게 참았구나.’ 깨달았다. 생각보다 길었던 시술이 끝나고 교수님께서 설명하시길 재발된 부분 절제는 어렵지 않았는데 새로운 부전도로 발견해서 그것까지 절제하느라 시간이 더 걸렸다고 한다. 그 놈이 최근 그 놈이었나? 그냥 찍기! 20년 전에는 시술 후 7시간인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었는데 이번에는 봉합시술로 지혈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2,3시간으로 단축되었다. 전기도자절제술 두 번 받아본 사람으로서 정말 세상 좋아졌다.



# 제1회 11·11 하트 리듬의 날 부정맥 희망 수기 공모전

시술 후 4개월이 지났다. 발작, 정말로 한 번도 없었다. 발작, 시동을 걸려고 노력하는건 같은데 시동이 안 걸린다. 쌤통! 45년의 인생에서 반 이상을 함께한 병. 진단명 PSVT - 발작성 심실상성 빈맥. 의로지식 제로인 나에게는 간장공장공장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진단명. 이제 정말 바이바이이다. 다시 만나지 말자!

치통을 경험해봐야 없었을 때에 감사할 줄 알고, 이석증을 경험해봐야 그냥 걸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을 겪더라도 그 어려움을 겪어야 평범함에 감사할 줄 아는 것 같다. 혹시나 나의 심장을 흥분시킬까 걱정하며 맘껏 못했던 것들, 밤새 우기, 아이스 아메리카노 들이키기, 조깅, 운동... 이제 그 평범한 것들을 맘껏 할 수 있다. 진심으로 그 평범함에 감사한 마음이다. 모두가 힘들게 버티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람들과 인사할 수 있는 그 평범함을 기다려본다.

